SEPTEMBER 1997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36-70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TEL : 920-5354 FAX : 923-3507
발행인 : 곽 동 일 / 편집인 : 연 병 길 / 등록번호 제2-124호 / 인쇄인 : 김 영 길 / 인쇄처 : 중 앙 문 화 사 TEL : 717-5511 (대) FAX : 717-5515

권 두 언

경로효친(敬老孝親)

우 행 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사람은 왜 늙어 가게 마련인가? Bromley는 인생의 1/4은 성장해 가면서 보내고 나머지 3/4은 늙어 가는데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장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늙어가게 되어 있고 그 어느 적당한 시기부터 우리 자신들이 노인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명국에서처럼 우리 나라는 노인을 점차 기피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 밀어내고 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한국일보에 기고한 '한국 찬가'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을 찬양하면서 모든 서구 문명국의 모범이 된다고 한바 있다. 그런데, 외국의 지성인까지 부러워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이 본고장인 우리 나라에서는 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가? 물론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산업 사회에서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시상의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닐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나 은공에 보답하는 효도는 글이나 말로서만 가르치지 생활이나 행동으로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노인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범면도 보고 배우면서 자랄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은 소 귀에 경읽기로 빛을 잃게 되었다고 보겠다.

흔히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쏟는 정성의 반이라도 노부모에게 기울인다면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 사상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본다. 부모가 자식을 깊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의무라고 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자식의 도리요 의무라는 의식을 깊이 심어 주고 고취시키는 것이 노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해심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지도자 과정'의 오륙십대 학생들과 자신들을 포함한 우리 나라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자신들을 포함한 우리 나라 노인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 생계 대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에게는 좀더 나은 인생을 보장해 주어야 겠다는 마음에서 생긴 지나친 교육열과 과잉보호가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핵가족화와 잘못된 선진화의 결과가 며느리나 아들 손자에게까지 소외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가 오히려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노인 세대를 위한 국가 자원의 사회 보상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과 노후의 생활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나 경험, 지식의 결핍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수없이 쏟아지는 mass media의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이상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을 허물어 뜨리는 이 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도덕관과 가치관을 확립해서 주도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기도 하였다. 노인의 생명력이나 활동 능력의 저하, 또는 정서적, 심리적 특수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늙음이 우리 인생의 지식, 사회적, 생리적, 정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인간 실존 그 자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노인들만이 낚아온 경륜과 지혜를 가정이나 사회, 국가가 대폭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이 성숙한 자아실현과 성장 및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통찰하는 혜안으로 존경받을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노인 정신의학회가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1997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1997년 9월 26일(금) 오후 13 : 00~19 : 00

◈장 소 :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12 : 30 - 13 : 00 등 록

13 : 00 - 13 : 10 인 사 말 — 학회장 : 곽 동 일

사 회 : 오 병 훈

Ⅰ. 특 강

좌 장 : 곽 동 일(고려의대)

김 영 훈(인제의대)

13 : 10 - 14 : 00 알쯔하이머 치매의 분자신경생물학적 소견

14 : 00 - 15 : 00 Neurobiological background for the pharmacology of Alzheimer's disease — Bondareff (U.S.C)

Ⅱ. 심포지움

주 제 : 노인정신의학에서의 쟁점(Critical Issues in Geriatric Psychiatry)

좌 장 : 유 계 준(연세의대)

김 영 정(부산의대)

15 : 00 - 15 : 40 생물학적 측면(노화와 약물대사)

15 : 40 - 16 : 00 휴 식

16 : 00 - 16 : 40 심리적 측면(노화와 상실) — 박 인 호(울산의대)

16 : 40 - 17 : 20 사회적 측면(정년퇴직) — 이 호 영(아주의대)

17 : 20 - 17 : 30 휴 식

Ⅲ. 연제발표

좌 장 : 신 석 철(충남의대)

17 : 30 - 19 : 00 조 맹 제(서울의대) / 전 진 숙(고신의대) / 채 정 호(가톨릭의대) / 오 병 훈(연세의대)

- 정기총회 -

사 회 : 이 민 수(고려의대)

전공의 워크샵

주 제 : 노화와 수면

• 일 시 : 1997년 9월 26일(금) 09 : 00~12 : 00

• 장 소 :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08 : 30 - 09 : 00 등 록

사 회 : 김 창 현(국립의료원)

좌 장 : 연 병 길(한림의대)

김 인(고려의대)

09 : 00 - 09 : 40 노인에서의 수면변화

09 : 40 - 10 : 20 수면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이 성 훈(연정신경정신과)

10 : 20 - 10 : 40 휴 식

좌 장 : 이 철(가톨릭의대

양 창 국(동아의대)

10 : 40 - 11 : 20 노인수면장애의 진단

11 : 20 - 12 : 00 노인수면장애의 치료 — 정 도 언(서울의대)

• 총무부 소식 •

1. 1997년 3월 6일 '97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차 임원회가 신라호텔 Parkview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97년도 기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2. 1997년 5월 15일 '97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3차 임원회의가 신라호텔 Parkview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발간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발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3. 1997년도 3월 20일과 4월 30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편집위원회 임원회의가 신라호텔 Parkview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발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4.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찬위원장 : 곽 동 일
   간　　사 : 이 민 수 · 연 병 길
   위　　원 : 신 석 철 · 이 정 호 · 우 행 원 · 박 종 한 · 오 병 훈 · 정 인 과 · 조 맹 제
   　　이　　철 · 전 진 숙 · 기 백 석
5. 1997년 6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집필진에게 원고청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6. 1997년 9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교과서 집필진에게 원고청탁서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 학술부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집담회 ☜

■ 일　시 : 1997년 9월 12일(금) 오후 4시 30분~6시 50분
■ 장　소 :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P1 회의실

4 : 30 – 5 : 30	축복받은 노인	김 석 영 목사 (문현제일교회)
5 : 30 – 6 : 30	치매의 병리	허 기 영 교수 (동아대학교)
6 : 30 – 6 : 50	질문 및 토의	

• 기획부 소식 •

• 1997년 8월 11일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에서 기획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Newsletter 제 4 권 2호의 편집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추계학술대회시 계획된 시민 강좌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 교과서 편집위원회 소식 •

• 노인 정신의학회 교과서 편찬을 위한 교과서 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집필의뢰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997년 8월 31일까지 원고 마감이나 집필이 늦어지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연수기 •

3개월간의 UCLA 노인정신과 연수

조 맹 제 (서울의대)

1996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미국 Los Angeles에 있는 UCLA Medical Center의 Neuropsychiatric Institute(NPI)내 Geriatric Psychiatry Department에서 3개월간의 연수기회를 가졌었다. 나는 장기 연수를 대학병원이 아닌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의 역학 및 정신병리부(Epidemiology and Psychopathology Research Branch)로 가서 2년간 연구만 했기 때문에 단기연수는 꼭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었다. 미국에서도 노인정신과가 가장 전통이 있고 특히 임상적으로 활발한 곳은 UCLA와 Durham에 있는 Duke University로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두 곳의 문을 두들겨 보기로 했으나 처음부터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Duke에서는 자신들과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3개월은 너무 짧으니 꼭 6개월로 연장해서 오라고 회신이 왔는데 정말 오라는 것인지 정중한 거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던 학교와 병원 측에 3개월 연장의 가능성을 문의해 보았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UCLA 역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에 California 주 자체가 이민법이 바뀌고 하여 매우 많고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했다. 처음의 회신은 UCLA의 Medical Center 본원보다 affiliated VA(Veteran's Administration) 병원 두 곳을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향후 서울대병원의 분당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사하게 지향하는 모델인 UCLA 본원 노인정신과를 희망한다고 재차 신청하였다. 결국 승낙은 얻었지만 3달인데도 6개월 체류형식으로 하여 IAP-66, J-1 Visa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처음에는 간단히 3개월이니까 방문비자면 될텐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싶어 화도 났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Visiting Professor의 certificate를 받음으로서 병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나 모든 병원과 학교의 부대,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져서 나중에는 무척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약 10년 전에도 UCLA의 NPI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가서 보고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다. UCLA Medical Center내에 있는 NPI는 독립된 7층 빌딩을 갖고 있고 경영운영체계도 병원 본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정신과는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3 bed의 독립된 병동을 갖고 있었고 교수실, 각종 연구실 등이 있었다. UCLA의 노인정신과는 유명한 Dr. Jarvik이 약 20년동안 Chief로 있었으며 1981년부터 geriatric psychiatry fellowship program을 시작하였는데 Duke대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작한 곳이다. 이 Program은 Dr. Jarvik의 지도하에 일전에 우리나라도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 Dr. J. E. Spar가 구성하였는데 그 첫 fellowship을 수료한 사람이 지금의 노인정신과 과장인 Dr. Gary Small이라고 했다. 병동의 모든 clinical activity와 레지던트의 training은 여전히 Dr. Spar가 책임자였고 Dr. Small은 과장이기는 하나 임상에는 거의 관여치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듯했다. 그가 병동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Alzheimer 치매에 관한 genetic, neurobiologic aspect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비를 받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의 주요 faculty 멤버는 부교수인 Dr. Andrew Leuckter인데 매우 인상이 좋고 nice한 매너를 가진 전형적인 Texas 미국인이다. 휴스턴의 Bayer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서 정신과와 노인정신과를 수료하고 현재 임상 연구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Dr. Spar를 도와 병동에도 관여할 뿐아니라 외래의 책임 supervisor이며, 특히 Brain EEG mapping에 깊은 연구를 하고 이 분야의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알쯔하이머 치매간의 EEG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몰두해 있었고 훌륭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충분한 연구비들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인 Research

assistant의 고용에는 별 흥미가 없는 듯했다. UCLA NPI에는 5개의 병동이 각 층에 있었는데 규모나 내부 구조는 모두 비슷했다. 2개의 Adult 병동과 1개의 Child Psychiatry, 1개의 Substance Use and Adolescent ward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Geriatric psychiatry ward였는데 2개의 Adult ward는 대개 환자가 50~60%밖에 차지 않았고 병동 가동률은 노인정신과 병동이 가장 좋았다. 노인정신과는 PGY 1(정신과 인턴에 해당) 2명, PGY 4(4년차 resident) 2명이 배당되고 각 3~6개월씩 rotation을 하고 있었는데 한사람의 Chief Resident는 1년간 노인정신과만 한다고 했다. 그는 Dr. Kwon이라는 한국인 2세인데 거의 한국말을 몰랐으나 무언중에 서로 교감할 수가 있었다.

4명의 노인정신과 전공 Fellow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1~2년 course이며 첫해는 임상 fellow이며 이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년째는 주로 research에 관계한다. 병동과 외래에는 많은 attending professor들이 있고 이들이 resident나 fellow의 training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attending 교수들은 정식 봉급이 없고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고 본원 외래에서도 일주일내 3일 정도씩 개인 clinic처럼 하며 개업을 하는 혜택을 갖고 있었다.

병동 환자는 주로 psychotic feature를 보이는 치매환자나 우울증 환자 들이었다. 매일 Dr. Leuckter나 3명의 attending professor들에 의한 case work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 주치의 PGY4, 담당 Nr, 수간호사, 사회사업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한다. 약물 투여에서부터 치료비 부담 및 퇴원후의 환자 care까지 통괄적인 approach를 함으로써 말 그대로 전인적 치료를 하고 있었다. 특히 ECT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놀라웠다. NPI 내에 ECT 처치방이 따로 있어 정신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들이 같이 행동하며 일하고 전속 담당 전문간호사가 3명이 있었다. 매일 오전 중에 평균 8~10명 정도가 ECT 치료를 받고 외래환자들이 주로 대부분으로 maintenance ECT를 받고 있었다. 레지던트들은 특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에 매우 익숙해 있었고 환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절실한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치료적 노력이 매우 돋보였다.

• 노인 정보 •

국회 복지위,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등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신 기 하)는 7월 15일 오후 6시 임시국회 중 3차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생활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중 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17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의결된 개정법안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고(안 제6조)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했으며(9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30조)토록 하는 동시에 ▲중증 치매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34조). 또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7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신설(8조)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 2, 3급으로 법에 규정하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12~13조)했다.

치매노인 10년대책 수립 전국 보건소에 상담센터 설립

정부는 치매노인 10년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997년에 치매진단, 인력양성등을 담당할 치매종합센터와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현재 3개소에 설치중인 치매병원을 2천년까지 전국 시·도에 1개소씩 총 15개소를 건립하고, 치매 전문 요양 시설도 현재 10개소에서 2천 5년까지 70개소로 확대 설치하게 된다. 노인,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으로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98년부터 틀니와 보청기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국의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 확대하여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토록 하고, 내년까지 국고로 공공 노인종합복지타운 5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국민연금기금으로 종합휴양단지를 2천년까지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1세기 노인건강의 메카 분당노인전문병원 국가중앙노인병센터로

21세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최첨단 노인의학의 연구 및 최첨단 진료와 노인병 전문의료 인력양성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를 실현한다.」는 설립 이념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에 6개(노인뇌신경센터, 노인심장센터, 노인폐센터, 노인관절센터, 노인종합병동, 재활의학센터) 특성화 센터를 설립하고, 지능형 병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 노인 월수입 절반이 30만원 이하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2천가구중 3분의 1에 가까운 30.8%가 월평균 개인수입이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가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이돈 역시 10명중 6명이 자녀로부터 타쓰고 있으며 연금이나 퇴직금 의존자는 고작 6.7%일뿐. 시는 취업 확대를 위해 실버 직종 개발과 노인전문인력 은행 설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지원으로 수행중인 노인연구(1997년 신규)

▲경 난 호(이화의대) / 한국 도시지역사회에서 당뇨병의 역학과 병인규명 및 관리체계 개발
▲정 종 문(수원대) / 노인성 백내장과 당뇨, NO간의 관계 규명에 따른 백내장 치료제 개발
▲김 진 숙(한국한의학연구소) / 한약을 이용한 뇌신경세포의 노화예방 및 치료제의 개발연구
▲송 동 근(한림대의대) / 천연기념물로부터 노인성 치매 및 뇌졸중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
▲한 상 섭(한국화학연구소) / 노화촉진마우스(SAM)를 이용한 녹차의 약리활성 연구(Ⅰ)
▲김 현 표(강원대) / 광노화방지를 위한 식물생리활성물질의 개발
▲최 성 재(서울대) / 치매환자 관리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 복 기(국립보건원) / 노화종합연구 프로젝트 기획 및 노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배 피우면 치매 잘 걸린다 - 계명大 노인 955명 조사

담배를 하루 한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달성군 보건소가 최근 계명대 예방의학교실과 공동으로 달성군내 60~64세 노인 9백 55명(남 4백 21명, 여 5백 3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사회적응능력, 인지기능 정도 등을 조사한 노인 건강조사 분석 결과 밝혀졌다.

• 치매노인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

1993년 개원한 인천은혜병원(원장 : 김 상 국)은 국내 유일의 노인 전문병원으로 인천 서구 심곡동 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T. 032-562-5101) 현재 노인성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외

에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레이션 요법, 인지요법, 작업요법, 회상요법등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이며 많은 치료적 효과를 얻고 있어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은혜병원 의료사회사업과에서 실시중인 집단치료는 매일 1회 1시간씩 10~15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 진다. 집단치료의 프로그램은 노인의 잔여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도록 돕는다. 집단치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 법	내 용
음악요법	민요 · 가요 · 동요 부르기, 악기연주, 음정 · 박자 익히기, 노래자랑, 음악감상, 율동
미술요법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풍경 구성법, 만들기, 물감불기, 자화상, 오려 붙이기, 꼴라쥬, 찢어 붙이기, 모래그림 그리기
레크레이션 요법	풍선게임, 호흡 조절 게임, 집중력 게임, 손으로 하는 동화, 노래와 율동
작업요법	밀가루 반죽하기, 찢기, 소조활동, 종이 사슬 만들기, 가위로 오려 붙이기, 구슬 분류하기, 물건 쌓기
인지요법	느낌 나누기, 속담 알아맞추기, 기억력 게임, 소리구별, 촉감찾기, 퍼즐 맞추기, 인지카드놀이, 얼굴 만들기
회상요법	주제놓고 이야기 나누기(Personal History 중심으로), 사진 보고 이야기 나누기, 연상화 그리기, 소중한 가치관, 공통점과 차이점

집단치료의 기대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계절에 관련된 노래, 달력 만들기, 고향풍경 그리기 등의 미술활동, 지남력과 관련된 대화 등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지남력 장애를 치료,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적극적이고 활동성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배출하고 해소하도록 도움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도록 돕고, 예측되는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세째, 회상요법, 흘러간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억력을 되찾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네째, 무감동, 무기력, 무관심한 치매환자에게 참여의 동기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외부의 활동 뿐만 아닌 자기 자신과 내면까지도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다. 다섯째,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노인환자가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우며, 이로인해 노인의 남은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

• 용인노인병원 개원 소식 •

9월 중순 개원할 예정인 용인노인병원(원장 한일우)은 총 400개 병상을 갖게 되며 신경정신과 병동, 신경과 병동, 내과 중환자 병동 등 질병에 따라 병동을 분리하여 이에 적합한 병동내 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욕창 방지용 특수침대와 무선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중환자 치료시설, 신경인지 재활치료 · 물리 치료 · 작업치료 시설, 신경정신과 · 신경과 · 내과 진단장비를 설치하여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체계적 치료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치매환자들을 위한 신경인지 재활치료, 회상요법 및 현실 오리엔테이션 요법 등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용인노인병원에서는 통합적인 진단과 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치과를 개설하고 사회사업실, 신경인지기능 검사실과 임종을 대비한 호스피스실 등을 둘 예정이며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치료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 관련학회 및 단체 소식 •

❑ 제 5 회 한국치매협회 학술 심포지움

1997년 7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지하 A강당에서 열린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치매의 임상 양상/한일우(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치매의 유전 및 생화학적 진단/김종원(성균관의대 임상병리학과) ▲신경심리학적 진단/최진영(성신여대 심리학과) ▲신경영상진단/김상은(성균관의대 핵의학과) ▲인지기능장애의 약물요법/한설희(충북의대 신경과) ▲행동장애의 약물요법/우성일(경상의대 정신과) ▲가정간호/임영미(연세원주의대 간호학과)가 발표되었다.

❑ Concise Guide to Geriatric Psychiatry, Second Edition

James E. Spar, MD, and Asenath La Rue, RhD 1997/304 pages/$ 21.00

• 회원동정 •

···› 곽 동 일 회장(고려의대)

- 1997. 3.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장 임명
- 1997. 7. 19 정신건강연구소 창립 심포지움 「재해와 정신건강」
- 1997. 7. 25 청소년 개발원 지도자 연수에 「중년기의 정신건강」강연
- 1997. 8. 30 노인복지시설 심포지움 좌장

···› 연 병 길 회원(한림의대)

1997년 5월 1일부터 3년간 대한의학회 의료정보 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회원 가입

···› 김 영 훈 회원(인제대학 부산백병원)

614-735 부산시 진구 개금 1동 633-165

전 화 : 051) 890-3687, 6749 전 송 : 051) 894-2532

···› 김 성 수 회원(군산개정병원)

573-440 전북 군산시 개성동 413

전 화 : 0654) 450-1162 전 송 : 0654) 450-1199

• 제 8 회 IP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참가 •

제 8 회 IPA 학회가 'Aging in a World of Change'라는 주제로 1997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36개국에서 750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 우리 나라에서는 유계준, 황익근, 박종한, 우종인, 연병길, 오병훈, 기백석, 전진숙, 김창현, 이정희, 최인근, 홍승봉, 서국희, 배재남 등의 14명의 선생님과 후원자인 제일약품의 이문철 부사장, 박종우 대리, 한국 Parke-Davis의 박호걸 이사님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회에서 Association of Alcohol-induced Cognitive Disorders with Pathological Aging(고신의대 전진숙), Diagnostic Accuracy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Korean Version(인하의대 배재남 등), Age Associated Cognitive Decline(AACD):Emerging Critical Issues(서울의대 우종인), Sleep Disturbances in Aged Neurological Disorders(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등의 구연과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CERAD) Assessment Packet in Korea. Part I:Clinical Evaluation Part(서울의대 이정희 등), Effect of Elderly Leisure Functioning on Depression Scale(연세의대 오병훈 등) 등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노인정신의학(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투고 규정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2회(5월, 10월) 연구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IIIII 논문 접수처 IIIII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학회지 편집위원장 정 인 과
TEL : 02-818-6139
FAX : 02-852-5794

■ 논문제출요령 및 기타 공지사항

- 투고요령은 개정된(97. 1) 신경정신의학회지와 동일하다.
- 논문원고는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는 A4 용지에 2열 간격으로 인쇄한 것을 2부 논문 접수처로 제출한다.
-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3.5인치 디스켓으로 함께 제출한다.

大韓老人精神醫學會 任員陣 (1996~1998)

	TEL	FAX
會 長 : 郭東日 (고려의대)	02) 920-5211	02) 923-6010
副會長 : 申石澈 (충남의대)	042) 220-7287	042) 253-0450
李正浩 (인제의대)	02) 950-1083 · 950-1906	02) 936-8069
監 事 : 禹幸源 (이화의대)	02) 760-5138	02) 744-9521
朴宗漢 (효성가톨릭대)	053) 650-4785 · 650-4282	053) 623-7507
總務部 : 李敏秀 (고려의대)	02) 920-5354	02) 923-3507
李 哲 (가톨릭의대)	02) 590-1531	02) 594-3870
趙成男 (치료감호소)	0416) 857-2601	0416) 857-2608
金隆喜 (용인정신)	0331) 281-8251	0331) 281-8267
學術部 : 吳秉勳 (연세의대)	0347) 65-0442	0347) 64-8662
金昌鉉 (국립의료원)	02) 260-7296	02) 260-7296
田珍淑 (고신의대)	051) 240-6945 · 250-5070	051) 241-5069
李義相 (연세의대)	0347) 61-1890 (교 112)	0347) 64-8662
企劃部 : 延炳吉 (한림의대)	02) 224-2268	02) 487-0544
奇栢錫 (중앙의대)	02) 260-2254	02) 279-8474
崔仁根 (한림의대)	02) 639-5460 · 639-5462	02) 677-9095
崔鍾赫 (국립서울정신)	02) 204-0357	02) 458-0731
編輯委員會 :		
鄭寅果 (고려의대)	02) 818-6738	02) 852-1937
吳秉勳 (연세의대)	0347) 65-0442	0347) 64-8662
延炳吉 (한림의대)	02) 224-2268	02) 487-0544
趙孟劑 (서울의대)	02) 760-3155	02) 744-7241
李敏秀 (고려의대)	02) 920-5354	02) 923-3507
韓一宇 (용인정신)	0331) 281-8251	0331) 281-8267

• 회비납부 안내 •

총무부 온라인 계좌번호
예 금 주 : 이 민 수(대노정)
서울은행 : 34204-0032965

☞ 회원주소록이 미비하여 정리중에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회원이나 회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연락바랍니다.
전화 : 02) 204-0357 · 전송 : 02) 458-0731 최 종 혁
전화 : 02) 224-2268 · 전송 : 02) 487-0544 연 병 길